현대불교

신상품 LED인등 · LED전구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 구독신청 02)2004-8212 buddhanews.com 불기 2552년 (서기 2008년) 5월 28일(음력 4월 24일) 수요일 (주간) 제681 호

"불교미술품도 가짜 많다"

이동천 박사 '진상' 출간으로 논란 점화

학계선 "고려불화 등 상당수 위작" 지적

"1000원권 뒷면 그림을 비롯해 서화작품의 90%는 가짜"라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고려불화 등 불교미술품에도 위작이 적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동천 박사(서울대 동양화가 작품감정론 강사)는 5월 20일 발간된 <진상-미술품 진위 감정의 비밀>(동아일보사)를 통해 1000원권 지폐에 실린 정선의 '계상정거도'(보물 제585호)와 유홍준 前 문화재청장이 제주시에 기증한 <김정희 편지 모음집>,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신윤복의 '아기 업은 여인' 등이 위작이라 밝혀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이 박사는 "불화 등 불교미술품에 대해서는 의견을 밝힐 수 없다"고 말을 아꼈지만, 이미 불교미술학계에는 "유통되는 고려불화 등 불교미술품 상당수가 위작일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와 관련, 정우택 교수(동국대)는 "10억원을 호가하는 고려불화는 국내 소장이 적고 일반인들에게 낯설어 위작이 많다"고

위작 논란에 휩싸인 1000원권 지폐의 '계상정거도'.

지적했다. 문명대 교수(前 동국대)는 "시중의 불교미술품 90%가 가짜"라고 단정했다. 1만여건 이상의 문화재를 감정했다는 문 교수는 "소위원회 등을 거쳐 박물관 등 기관이 매입하는 경우는 위작이 드물지만 개인 소장품은 심각하다. 1년에 100건을 감정한다면 진품은 2, 3건도 되지 않는다. 불화, 불서, 불상 불교미술 전 분야를 통틀어 가짜가 없는 분야는 없다"고 강조했다.

2004년 국내 전시됐던 북한의 '국보급' 불상은 고구려 시대 것이 아니라 1960년대 이후 만들어진 위작임이 밝혀졌다. 또 2005년 '아미타여래좌상'은 위작이라 판명했던 학자가 되사들인 후 신라시대 국보급 보물이라 주장해 화제가 됐었다. 2006년에는 송암미술관이 인천시에 기증한 불상 250여점 등 9300여점의 미술품 가운데 70%가 가짜로 판명됐다.

문화재 감정은 국가문화재는 문화재위원회와 중앙유물평가심의위원회, 지방문화재위원회, 공항 · 항만 소재 문화재감정관실 등이, 개인 소장 유물은 한국고미술협회 등 협회 혹은 학계 전문가 등에게 개별적으로 의뢰해 이뤄진다.

그렇다면 위작은 어떻게 유통될까? 한 전문가는 "요즘 위작들은 주로 중국 고미술상 등이 '북한에서 도굴됐다'며 사진들을 인터넷 등에 소개하면 한국 · 일본 등 고미술상이 이들과 직거래한다. 서울 옥션 등 미술품 경매시장을 통해 합법적으로 거래되기도 한다"고 귀띔 했다.

이러한 미술품 위조를 위조학력 · 위조지폐처럼 사회현상의 하나로 진단한 이동천 박사는 "대부분 사람들은 실체보다 말에 속는다. 그림을 안다는 사람이 끼어들면 일은 더 커진다. <도록>이라도 만들면 폼이 나서 가격도 치솟는다"고 설명했다. 이 박사는 "노출되지 않은 미술품 수요 특성상 위작의 공급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며 "미술품 감정전문가를 양성하고, 미술품 감정을 명문화해 투명화하자"고 제언했다.

2004년 "장승업 · 김정희의 작품 절반이상이 가짜"라고 주장했던 강우방 교수(前 이화여대 초빙교수)는 "진위감정을 할 수 있어야 진정한 학자"라며 미술학자들이 전문지식과 소양을 갖추는 것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조동섭 기자

5월 20일 한강시민공원 잠실지구에서 펼쳐진 '생명의 강 모심 여성 성직자 공동기도회 및 순례행진' 모습. <사진=박재완 기자>

'대운하 반대' 생명도보 순례단 회향

서울서 103일간의 대장정 마무리

'생명의 강을 모시는 사람들'(단장 이필완, 이하 순례단)이 5월 24일 도보순례를 회향했다. 2월 12일 김포 애기봉 전망대에서 생명과 평화를 염원하고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며 순례의 첫발을 뗀지 103일째 되던 날이었다.

이날 순례단의 마지막 걸음은 잠수교 북단에서 출발됐다. 이후 도심지인 녹사평역에서 남산순환로, 숭례문, 보신각까지 이어졌다. 이날 마무리 중의 마무리는 약 5000여명의 종교인과 시민들이 운집한 가운데 미래세대를 위한 생명과 평화의 강 퍼포먼스 등으로 꾸며진 '생명과 평화의 강모심 대회'로 마무리됐다.

불교 · 개신교 · 천주교 · 원불교 · 성공회 등 5개 종교가 한 자리에 모여 같은 마음으로 순례를 진행한 것은 국민들에게 생명존중사상을 환기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순례단은 한강-낙동강-영산강-새만금-금강-남한강-한강에 이르는 장장 5000리(약 2000km)에 달하는 길을 도보로 순례해온 것이다.

순례단 이원규 팀장(시인)은 "우리는 강을 '수돗물'로만 접하고 살고 있다"면서 "모든 이들이 깊은 성찰과 참회를 통해 생명의 근원인 강을 지키고, 만생명과 더불어 행복한 사회가 되기를 염원한다"며 순례의 마침표를 찍었다. 김강진 기자

"10.27특별법 제정 제대로"

조계종 추진위, 시행령 관련 국방부 항의방문

"가해자인 국방부는 10.27법난 특별법 시행령을 제대로 제정하라."

1980년 신군부에 의해 자행된 10 · 27법난 관련 특별법이 제정됐음에도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가 시행령에 핵심적인 내용을 담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면서 조계종이 5월 22일 국방부를 항의 방문했다.

조계종 '10 · 27법난에 대한 특별법 제정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법타 · 원학)는 이날 오후 국방부 김종천 차관을 만나 법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특별법 시행령을 온전하게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추진위는 이 자리에서 국방부에 △정부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 시행령에 '피해종교단체 추천자의 위원 위촉'을 명시하여 불교계 참여를 보장하고 △아직도 해명하지 못하고 있는 의문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학술 · 연구활동과 기념행사, 역사관 건립, 추모단체 지원 등을 시행령에 명문화하며 △피해스님들에 대한 명예회복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심사분과위원회와는 독립된 명예회복추진분과위원회를 신설할 것 등을 요구했다.

추진위는 향후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2000만 불자들의 여론을 모아 관련 기관 항의방문, 청와대 앞 1인 시위 등을 적극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지관, 조계종 총무원장)도 5월 22일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10 · 27법난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한다'는 제하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3면에 계속〉

김성우 기자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취급업무◆
민사 · 형사
가사 · 행정
법률사무소 서안
전 화 | 031)387-5400 | 팩 스 031)387-5409
휴대폰 | 010-7504-4521 (강영화 변호사)
017-535-0685 (김기현 변호사)

'선지식-혜민 스님' ▶17면

'허허당의 세상만사' 쉽니다

社 告

미얀마 · 중국에 자비의 손길을

조계종과 현대불교신문은 불교국가 미얀마에서 발생한 사이클론 나르기스와 중국의 대지진 피해로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돕기 위해 동체대비(同體大悲)의 마음으로 구호성금을 모금하고자 합니다. 자리이타(自利利他)의 원력을 가진 불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을 기다립니다.

■동참계좌 : 국민은행 023501-04-127811, 농협 053-17-005950
■예금주 : (재)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모금기간 : 6월 30일까지
■문의 :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02-2011-1823)

'대운하반대' 시집 출간

한국의 문화예술인 214인은 이명박 정부의 대운하 사업에 일대 반기를 드는 특별 공동시집 <그냥 놔두라. 쓰라린 백년 소원 이것이다>를 발간, 5월 20일 서울 인사동 민예총 문예아카데미에서 공표했다.

김규동, 고은 등 시인 203인의 신작시와 이철수, 홍성담 등 화가와 서예가 11인의 염원이 담겼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전개된 반 생태 · 반 평화적인 현실에 대한 통곡이다. '생명의 어머니이신 강을 모시기 위한 문화예술인공동연대가 책임 편집을 맡았다. 가연숙 기자

불가 최초 관불 관욕 전용
관 불 수 향
전단향이 그윽한 향향수로 관불,관욕시
생수에 희석하여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향 · 조각 · 공양물
능인향당
02)3663-6777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가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장성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마산 금강정토사 LED연등

천안 동심사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
LED 인등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아름다운 등
미래의 소중한 꿈을 담아 삼보공양을 찬덕연등이 함께 합니다

영가등

주름등

팔각봉축접등

청사초롱

육각조립등

공단등

오색등

칼라(보카시)연등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132-1/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